

정부 전폭 지원...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착착'

주행사장 공정률 62%...8월 시범 운영
27개국 참가 확정 내달 3개국 더 유치
300만명 관람 목표 관광상품 등 개발
조직위 "안전·숙박·음식 전 분야 만전"

세계 최초의 섬을 주제로 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개막을 4개월여 앞두고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관 삼아 순조로운 준비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수세계섬박람회가 7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출범 후 첫 국제행사인 만큼 전남도·여수시·(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섬 정책과 해양 미래를 선도할 전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29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사 개요와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오는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섬 문화·생태·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주행사장인 돌산 진도지구와 부행사장인 개도·금오도·여수엑스포장 등 3곳을 연계해 전시·체험·휴양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를 선보인다.

조직위는 준비 부실 등 대외의 우려가 제기됐던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동궤 경제위기...주사기 수급 점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니프터 공급 부족이 주사기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광주 북구 보건소 의약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주사기 판매업소에서 매점매석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재고량을 확인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현재 진도지구에 조성 중인 주행사장의 전체 공정률은 62%다. 도로 포장 등 기반 시설은 6월 말 준공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열린문화공간 64%, 안전시설물 60%, 섬박람회 랜드마크인 주제섬 53%, 전시관 조성 38%, 아트포토존 30% 등 모든 시설 공정이 일정해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직위는 내부 전시연출까지 마무리해 7월 말 준공한 뒤 8월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계 주요 섬 보유 국가들도 잇따라 박람회 참여를 확정하며 성공 개최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까지 프랑스, 그리스, 중국, 일본 등 27개 국가와 3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했다. 조직위는 5월까지 3개 국을 추가해 총 30개 국가 유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여국은 '국제교류섬' 전시관에서 각국의 특색 있는 섬문화를 선보인다. 관람객 유치 전략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조직위는 관람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단체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MICE 행사 유치와 향후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 수요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코레일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요트투어와 섬 음식 체험 등 테마형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도·금오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숙박·식비 등 여행 경비 지원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양시원 기자

민형배, 국회의원직 사퇴
오늘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6·3 지방선거 D-34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9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선 후보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3·4면

민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의원 민형배로서 마지막 국회 일정, 마지막 분회의가 될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민 후보는 "21대 국회 분회의 167회, 22대 국회 분회의 85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며 "본회의의 출석률 100%는 시민께 위임받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1대 국회 320건, 22대 국회 232건 등 총 552건을 대표발의했다"며 "대표발의 1위라는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과 지역의 요구, 대한민국 개혁 과제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민 후보는 "다만 제가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지역의 미래가 걸린 법안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 송구하다. 5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쟁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후보는 "국회에서 시작한 책임을 전남광주의 현장에서 더 크게 이어가겠다"며 "시민의 삶을 키우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일, 약속한 변화를 끝까지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30일 오전 9시30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변은진 기자

윤석열 체포방해 등 2심 징역 7년...2년 ↓

'하위사실 PG' 외신 전파 지시 등
1심 무죄 선고 혐의도 대부분 유죄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

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호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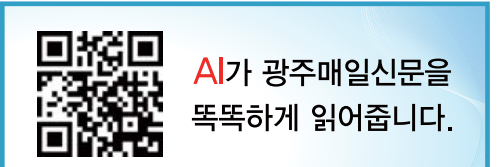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느냐며 일부 무죄로 봤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후도 없었다'는 하위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드선·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연합뉴스

Today

- 파리 달궁 '오월광주' 기획전시로 본다 7면
- 조선을 유럽에 알린 '헨드릭 하멜' 14면
- '호타준족' 슈퍼루키 박재현의 존재감 16면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松川 (주)송천

전기공사업 · 신재생 에너지기업 · 태양광 발전 시공/인허가

태양광 완벽 시공 기술...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도한다

(주)송천은 건물 태양광 발전과 농촌 태양광 발전 등을 시공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설립해 10여년 이상 꾸준한 성장을 이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이어와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매출 100억원을 달성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첨단벤처소로에 위치한 (주)송천 전경

양승환 대표이사

본 사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조산로 322 2동 1층
광주시사무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소로 16-2(월출동 971-39, 2층)

TEL. 062) 972.1527 / H.P. 010.9882.2405